

NH-Amundi HANARO 글로벌탄소배출권선물ICE 특별자산 상장지수투자신탁

## [탄소배출권-파생형](합성) (펀드코드: DN126)

투자위험등급 :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NH-Amundi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1)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입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기구 재산을  
주로 탄소배출권 관련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여 파생상품위험,  
환율 변동위험,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전략에 따른 추적오차 위험,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NH-Amundi HANARO 글로벌탄소배출권선물ICE 특별자산 상장지수투자신탁[탄소배출권-파생형](합성)'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p>이 투자신탁은 탄소배출권 관련 장외파생상품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ICE Global Carbon Futures Index(Excess Return)를 기초지수로 하여 1 쪽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원화로 환산한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합니다.</p> <p>이 투자신탁이 추종하는 기초지수는 글로벌 탄소배출권 선물의 가격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로 탄소배출권 선물 거래는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거래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중 E(Environment) 와 관련이 높은 투자를 목적으로 합니다.</p> <p>※ 탄소배출권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등 6 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각국 정부는 설정한 온실가스 배출총량(Cap)만큼 기업들에게 발전설비나 생산설비 등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Allowance)를 부여하고, 기업들은 탄소배출권의 부족분이나 잉여분을 배출권 거래제도를 이용해 거래(Trade)할 수 있습니다.</p> <p>※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투자자산의 가격하락으로 인하여 투자원금손실도 가능합니다. 또한 기초지수의 ESG 기준을 적용한 투자전략의 이행 등이 이 투자신탁의 운용성과로 반드시 귀결되는 것은 아니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및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p>										
	<p>분류</p> <p>투자신탁,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p>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p>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단위 : %)</p>					<p>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 · 비용 예시 (단위 : 천원)</p>				
		판매 수수료	총보수	지정참가 회사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 · 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투자신탁	없음	0.5000	0.0500	-	0.8067	83	169	259	449	1,001
<p>(주 1)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가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p> <p>(주 2)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 2 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41 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주 3)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p>											
투자실적추이 (연평균 수익률) (단위, %)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25.01.02		24.01.02		23.01.02		-	설정일 이후	

			~ 26.01.01	~ 26.01.01	~ 26.01.01																					
			투자신탁	24.91	8.18	2.87	5.09																			
			비교지수	2021.09.29	26.03	9.37	4.91																			
			수익률 변동성		21.06	22.34	25.34																			
(주 1) 비교지수: ICE Global Carbon Futures Index(Excess Return) (원화환산) x 100%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 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인력 (26.01.01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개, 억원)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해외 60 특별자산파생형, %)				운용 경력년수 (ESG 운용)											
			김서영	1984	책임 (부장)	7	688	7	7	24.91	8.18	7	6 개월 (2 개월)													
(주 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 2)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ETF투자본부 ETF운용팀에서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당해 투자신탁은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을 지정하지 않았으며, 상기 운용전문인력의 관리 감독하(혹은 해당 운용인력의 부재 시)에 담당 본부내(혹은 팀내) 다른 운용전문인력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주 3)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및 수익률) 및 이력은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4)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 5)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 6)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운용역) 일부 자료는 기간 미경과로 수익률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투자자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li> <li>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li> <li>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li> <li>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li> </ul>																									
	※ 추가적인 투자자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상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본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지정참가회사 및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합성ETF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계약을 통한 합성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로서 장외파생상품을 중요한 운용수단으로 하여 기초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합니다. 이에 따라 거래상대방의 자격요건과 위험관리 및 담보관리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 투자신탁의 계속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경우 상장폐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외파생계약에 따른																							

	복제비용, 헛징비용 및 각종 거래 수수료 등의 비용이 예상치 못하게 과도하게 발생할 경우, 이 투자신탁의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기본적으로 외국통화로 표시된 투자대상자산의 환율에 대한 환해지 거래를 실행하지 아니할 계획이므로 외국통화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 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즉, 이 투자신탁은 원화(KRW)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하는 위험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해당 외화투자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원화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상대적 가치 변화로 인해 투자시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원화의 가치가 투자대상국 통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면,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는 원화가치로 환산했을 때 낮아집니다. 이로 인하여 해당 통화가 원화대비 가치가 하락할 경우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적오차발생 위험	이 투자신탁은 기초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을 실현함을 그 투자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비용, 투자신탁 보수, 위탁매매수수료 등 관련 비용의 지출 등 현실적 제한으로 인하여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동일한 수익률이 실현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으며, 추적오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과 기초지수의 변동률이 동일할 것을 전제로 하는 투자는 당해 추적오차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지수 특성에 따른 롤오버(Roll-Over) 위험	이 투자신탁의 기초지수는 선물의 롤링효과(Rolling Effect)가 감안되는 Excess Return 지수이며 Excess Return은 투자신탁 성과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운용환경 및 각 시장환경에 따라 초과적인 비용(Rolling Cost)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 급격한 신탁재산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시장에서 원월물의 가격이 최근월물보다 가격이 높은 Contango 상황이 지속될 경우 Rolling Effect는 지속적으로 (-)의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고 시장 국면이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국면에서는 손실폭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현물가격은 상승하였으나, 파생상품의 성과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반대로 현물가격은 하락하였으나 파생상품의 성과는 이익이 발생하는 상반된 손익을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Rolling Effect는 사전적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선물시장 월월별 가격곡선(Curve)가 높은 변동성을 보임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높습니다.
총량제한 배출권거래(Cap and Trade) 제도 위험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도(Cap and Trade Regime)란 국가가 기업별로 탄소배출 상한선을 할당한 뒤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많으면 탄소배출권 거래소에서 탄소배출권을 사거나 반대로 남은 배출권을 거래소에서 팔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글로벌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입증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제도가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제도의 유효성 이외 다른 요인들로 인해 종료되거나 만료 시 간이 지나지 않을 수 있으며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인해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필요성 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거래량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극단적으로는 거래시장이 없어질 수도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기업들은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녹색기술(Green Technology)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비용이 탄소배출권을 구입하는것보다 경제적일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탄소배출권 수요를 현저히 떨어뜨려 펀드 수익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총량제한 배출권거래(Cap and Trade) 관련 규제 변화 위험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 변화 위험은 글로벌 시장참여자들의 의사결정(market behavior)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탄소배출권 규제의 불이행에 따른 벌금이나 폐널티가 부과되지 않을 경우, 탄소배출권 수요자의 탄소배출권 취득 필요성(incentive)이 감소할 것입니다. 이는 탄소배출권 가격 하락을 야기시켜 펀드 성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총량제한 배출권거래(Cap and Trade)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규제가 도입될 수 있으며, 이는 탄소배출권 거래시장과 펀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장외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합니다. 일반적으로 장외거래는 거래소를 통한 장내거래에 비하여 규제나 감독이 엄격하지 않으며, 거래소의 정산이행 보증과 같은 별도의 시장참여자 보호 장치들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외파생상품 투자는 거래상대방이 파산하거나 신용위기를 경험하는 경우 투자자금 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등 장내파생상품 투자보다 더 높은 신용위험을 부담합니다.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장외파생상품(스왑) 계약은 계약 당사자 쌍방간에 투자수익의 흐름을 서로 교환하는 거래로 일정 기간의 계약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시 계약이 종료됩니다. 계약 종료 시 계약 미갱신 또는 계약 종료 전이라도 거래상대방 신용상태의 악화, 부도 등에 따라 거래상대방을 교체·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할 대체 거래상대방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이 실현되도록 운용할 예정이지만, 계약 거래상대방 부재 등의 이유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외파생상품의 수익조건 변경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장외파생상품의 특성상 계약조건등의 변경으로 수익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 가격의 변경, 기초자산 가격 평가의 결정시점의 변경, 기타 지급일 등이 장외파생상품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의 산출방식 또는 구성종목이 본질적으로 변경되거나, 기초자산 가격 산출의 폐지나 단절의 발생,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종목 중 전부 또는 일부의 거래 중단 또는 정지로 인해 장외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써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수익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거래소 등의 문제로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종목에 대하여 정상적인 매매가격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심하게 지연된 경우, 정규 매매 마감시각 이전에 거래를 마감하여 당해 기초자산의 종가가 발표되지 못한 경우 및 금융시장의 거래중지사태 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수익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내외 금융시장의 관행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의 수익조건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익조건의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조건의 변경은 투자자가 예상치 못한 투자손실에 노출될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자금비공여형(unfunded swap) 구조로 원금의 교환 없이 기초지수 수익률과 조달비용 등을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기초지수 수익률을 수취하기 위해 조달비용(91일물 CD금리 수익률 + 스팍스프레드 등)이 5.12% 이내 수준(연환산 비용, 2024.01.08기준)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열거한 사유 등으로 인해 수익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담보가치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장외파생상품 투자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에 노출됩니다.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은 동일 거래상대방 기준으로 장외파생상품 매매 거래의 만기일까지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에 대한 추정금액으로 산출되며,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담보 설정 등이 있는 경우 담보의 가치만큼 최대 손실에 대한 추정금액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담보 가치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가치하락 및 거래상대방의 불충분한 담보제공은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을 증가시키며 경우에 따라 담보가치가 장외파생상품평가액보다 낮은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의 신용위험이 발생하게 되면 담보의 매각처분 등을 하더라도 담보가치를 하회한 만큼 투자신탁의 자산이 보호받지 못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차문제로 인한 유동성 공급자의 호가 스프레드 확대의 위험	유동성 공급자가 유동성공급을 위한 해지수단이 한국과의 시차가 존재하는 시장에서 거래됨에 따라 금융위기나 기타 사건들로 인해 기초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이와 연동하여 국내에서 거래되는 ETF의 유동성 공급호가 스프레드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 휴일이나 해외거래소의 시스템 문제 등 특정일에 발생되는 비정상적 거래가 일어나는 상황하에서도 이러한 유동성 공급호가 스프레드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기와 같은 사유로 유동성 공급호가 스프레드가 확대되면서 동시에 괴리율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거나 안정적인 시장상황에서는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 경우 괴리율은 축소될 수 있습니다.
ESG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자산 가치 변동성 외에 ESG 평가결과의 변동성 등 ESG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목적의 달성을 위한 특수한 운용 전략 및 투자방침 등으로 인하여 다른 투자신탁에 비해 투자신탁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 또는 높은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위험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매입 방법	· 개인투자자: 장내 매수 · 법인투자자: 장내 매수, 설정 청구	환매 방법	· 개인투자자: 장내 매도 · 법인투자자: 장내 매도, 환매 청구
-------	---	-------	---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기준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정방법: 당일 공고 기준가격 = 직전일 순자산총액/ 직전일 수익증권 총좌수 1 쪽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li> <li>공시장소: 지정참가회사 · 판매회사의 영업점과 지정참가회사 · 판매회사 · 집합투자업자(www.nh-amundi.com) · 한국거래소(www.krx.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li> </ul>								
과세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과세의 주요 내용</th></tr> </thead> <tbody> <tr> <td>집합투자기구</td><td>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td></tr> <tr> <td>수익자</td><td> <p>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b>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b>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p> <p><b>※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의 보유기간과세 적용 시행</b></p> <p>소득세법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하여 2010년 7월 1일부터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국내주식형 ETF(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ETF)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그 외 ETF(배당수익을 포함하는 Total Return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주식형 ETF 포함)는 보유기관과세 ETF로 분류되므로 과세 적용대상이 됩니다.</p> <p><b>&lt;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gt;</b></p> <p>매년 결산 · 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 · 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 · 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p> </td></tr> </tbody> </table>			구분	과세의 주요 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p>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b>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b>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p> <p><b>※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의 보유기간과세 적용 시행</b></p> <p>소득세법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하여 2010년 7월 1일부터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국내주식형 ETF(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ETF)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그 외 ETF(배당수익을 포함하는 Total Return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주식형 ETF 포함)는 보유기관과세 ETF로 분류되므로 과세 적용대상이 됩니다.</p> <p><b>&lt;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gt;</b></p> <p>매년 결산 · 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 · 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 · 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p>
구분	과세의 주요 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p>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b>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b>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p> <p><b>※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의 보유기간과세 적용 시행</b></p> <p>소득세법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하여 2010년 7월 1일부터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국내주식형 ETF(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ETF)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그 외 ETF(배당수익을 포함하는 Total Return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주식형 ETF 포함)는 보유기관과세 ETF로 분류되므로 과세 적용대상이 됩니다.</p> <p><b>&lt;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gt;</b></p> <p>매년 결산 · 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 · 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 · 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p>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NH-Amundi 자산운용(주) (대표번호: 02-368-3600/ 인터넷 홈페이지: <a href="http://www.nh-amundi.com">www.nh-amundi.com</a> )								
운용관련 자문업자	해당사항 없음								
모집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가능	모집. 매출 총액	모집(매출)총액에 제한 없음						
효력발생일	2026년 2월 11일	존속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a href="http://www.nh-amundi.com">www.nh-amundi.com</a>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주요업무),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4 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55 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nh-amundi.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nh-amundi.com)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nh-amundi.com)

**[알림]**

Source ICE Data Indices, LLC(이하 "ICE Data")는 허가를 득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ICE<sup>SM/®</sup>]"은 ICE Data Indices, LLC 또는 그 관계사들의 서비스표/상표이며, [NH-Amundi HANARO 글로벌탄소배출권선물ICE 특별자산 상장지수투자신탁[탄소배출권-파생형](합성)](이하 "해당 금융상품")과 관련, [ICE Global Carbon Futures Index (Excess Return)](이하 "해당 지수")와 더불어 [NH-Amundi 자산운용]에 그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NH-Amundi 자산운용], [하나은행] (이하 "신탁업자") 및 해당 금융 상품은 ICE Data Indices, LLC 또는 그 관계사, 또는 그 제3자 공급업체 (이하 "ICE Data 및 그 공급업체")에 의하여 후원, 보증, 판매, 홍보되지 않습니다. ICE Data 및 그 공급업체들은 증권에 대한 일반적인 투자(특히 해당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의 권유 가능성이나 신탁업자, 또는 증시 전반의 퍼포먼스를 추종할 수 있는 해당 지수의 능력에 대한 진술이나 보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해당 지수의 과거 성과는 미래 성과에 대한 지표 또는 보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ICE Data 및 그 공급업체들은 지수, 지수 데이터 및 여기에 포함, 관련, 또는 유래된 모든 정보 (이하 "지수 데이터")를 비롯, 특정 이용 목적에 대한 상품성 또는 적합성에 대한 보증을 포함하여 모든 명시적 및 (또는) 묵시적 보증 및 진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ICE Data 및 그 공급업체들은 "현시점 (AS IS)" 기준으로 제공되는 지수 및 지수 데이터의 적합성, 정확성, 적시성 또는 완전성과 관련한 피해 보상 또는 책임을 적용 받지 않으며, 지수 및 지수 데이터에 대한 이용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스스로에게 귀속됩니다.